

# 레전드는 살아있다



## 벼랑끝 아르헨 살린 '결승골' 메시



### 멕시코 2-0 꺾고 조 2위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첫판에서 이변의 제물이 된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사진)의 '황금 왼발' 덕에 멕시코를 잡고 기사회생했다.

아르헨티나는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후반 19분 터진 메시의 선제 결승 골과 후반 42분 메시의 도움에 이은 엔소 페르난데스(벤페카)의 췌기골로 멕시코에 2-0으로 승리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패했던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대회 첫 승전고를 울리며 조 2위(승점 3·골득실 +1)로 올라섰다.

올해 35세로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 공언한 메시는 2경기 연속골을 넣고

팀 승리까지 끌어내며 제 몫을 다했다.

메시의 왼발은 후반 19분 제대로 번뜩였다. 양헬 디마리아(유벤투스)가 오른쪽에서 내준 공을 메시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멕시코 골망을 흔들었다.

메시는 월드컵 통산 8골(2006년 1골·2014년 4골·2018년 1골·2022년 2골)을 기록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선수로 가브리엘 바티스투타(10골)에 이어 이 부문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와 기에르모 스타빌레가 메시와 동률을 이룬다.

멕시코가 공격의 고삐를 죄었지만, 득점은 다시 아르헨티나의 차지였다.

이번엔 21세 '영건' 엔소 페르난데스(벤페카)가 메시의 도움으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 좌완 김대유 가세... 두터워진 KIA 불펜

박동원 보상선수로 선택  
올 시즌 평균자책점 2.04  
이젠 외국인 투수 관심 집중



KIA 타이거즈가 박동원의 보상선수로 좌완 김대유(31·사진)를 선택했다.

KIA는 27일 "LG 트윈스와 FA 계약을 맺은 박동원의 이적 보상 선수로 투수 김대유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좌완 김대유는 2010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넥센에 입단했으며, SK와 KT를 거쳐 2020년부터 LG에서 활약했다.

사이드업인 그는 올 시즌 59경기에 중간계투로 출전해 39.2이닝을 소화하면서 2.04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1패 14홀드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64경기에 나와 50.2이닝을 2.13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면서 4승 1패, 24홀드를 수확했다.

KIA 관계자는 "좌완인 김대유는 구위와 무브먼트가 뛰어나 좌타자뿐만 아니라 우타자 상대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접전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고, 1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불펜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대유는 올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0.229의 피안타율을 기록했고, 우타자 피안타율은 0.255였다.

김대유 지명과 함께 KIA의 스토브리그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KIA의 시선은 '안방'으로 향했다. 박동원 잔류를 위해 공을 들였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대신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에서 주축상을 영입해 포수 전력을 더했고, 박동원의 보상선수로 불펜의 '즉시 전력감'을 선택했다.

불펜은 KIA의 고민 지점이다. 전상현-장현석-정해영으로 이어지는 'JJJ 필승조'가 올 시즌 부

상으로 흔들렸고, 장현석은 시즌이 끝난 뒤 팔꿈치 헛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필승조의 부상 고민 속 올 시즌 1점 차 패배도 19경기에 이르는 등 KIA는 '뒷심 싸움'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검증된 김대유가 가세하면서 KIA 불펜진은 한층 두터워지게 됐다. 무엇보다 김대유가 좌완이라는 점이 반갑다.

올 시즌 KIA는 이준영의 꾸준한 활약 속 시즌 막판 김기훈이 가세하면서 좌완 불펜 고민을 덜었다. 하지만 김기훈이 선발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김대유의 합류로 KIA는 다양한 마운드 구상을 할 수 있게 됐다.

트레이드와 보상선수로 포수와 불펜 자원을 더한 KIA의 다음 시선은 외국인 투수로 향한다. 사실상 KIA의 내년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KIA는 로니 윌리엄스, 셀 놀리로 올 시즌을 시작한 뒤 대체 선수로 토머스 파노니를 영입하면서 마운드 싸움을 했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이들 3명이 합작한 승수는 14승에 불과했다.

일단 KIA는 보류 선수 명단에서 놀린을 제외했다. 파노니의 교체도 염두에 두고, '원투펀치'에 맞는 강력한 공을 가진 선수로 내년 시즌 마운드 그림을 그리고 있다.

KIA의 스토브리그에 마침표를 찍을 외국인 선수에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눈시울 붉힌 '첫 득점' 레반도프스키



### 폴란드, 사우디에 2-0 승

풋볼 피치에 몸을 던져 슬라잉 세리머니를 펼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FC 바르셀로나·사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클럽에서는 리그와 컵대회 등에서 527골을 넣고, 폴란드 국가대표로도 이날 전까지 76득점을 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에게도 77번째 A매치 골은 특별했다.

레반도프스키는 26일 카타르 알라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 2-0 승리에 공헌했다.

골망을 가른 뒤, 레반도프스키의 얼굴이 달아올랐고 눈물도 맺혔다. 경기 뒤 레반도프스키는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감정적으

로 된다. 이번 대회가 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더 그렇다"며 "대표팀에서 뛴 때는 팀 승패에 더 집중한다. 그래도 개인 기록을 내고 싶은 바람이 있다. 항상 월드컵에서 득점하고 싶었고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7번이나 득점왕에 오르고, FIFA 최우수선수상을 2번(2020, 2021년) 차지한 레반도프스키에게도 월드컵 본선 무대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 본선 징크스를 털어나자, 폴란드 동료들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

폴란드 오른쪽 풀백 매티 케시는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월드컵 본선에서도 골과 도움을 보유했다. 그가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는 기록"이라며 "오늘 레반도프스키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톱 레벨에서 뛰며 차원이 다른 선수로 군림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전이 열린 지난 24일 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이 모여 응원을 하고 있다.

#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 "대~한민국" 한마음 응원

### 광주 곳곳 월드컵 열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첫 한국경기가 열린 지난 24일 광주 곳곳에서는 소규모 응원전이 열려 활기가 넘쳤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9기와 10기 원우 20여명은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식당에 모여 한국의 승리를 기원했다.

원우들은 경기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식당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리더스 아카데미 9기와 10기를 중심으로 모인 응원단 20여명은 한국과 우루과이 전력을 분

석하기도 하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기 바빴다.

경기 시작 30여분을 앞두고 가게에는 대형 빔프로젝터와 스피커가 설치됐다.

밤 10시 경기가 시작되자 가게에 있던 원우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을 시작했다.

실점위기 때마다 힘을 보태기 위해 파도타기 응원을 했고, 우루과이에 관대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90분간의 치열한 경기 끝에 0-0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들은 한국의 선전에 각별한 의미를 부

여했다.

이들은 "다같이 모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자주 모여 응원을 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연(50) 칠우대패삼겹살 대표는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만난 원우들은 학창 시절 친구처럼 끈끈하다.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서도 자주 모여 공부하고 운동해서 그런지 관계가 돈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팀 우루과이와 무승부로 16강 청신호가 켜졌다"며 "남은 두 경기도 원우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페퍼스 '목마른 첫승'...기업은행에 쳐 10연패

광주 AI페퍼스가 시즌 개막 후 10연패에 빠졌다. AI페퍼스는 27일 화성종합철강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IBK기업은행과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3(20-25, 14-25, 25-22, 13-25)로 졌다.

AI페퍼스는 올 시즌 10연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주포 니아 리드가 17점으로 부진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한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반면, 기업은행 김희진(20득점), 산타나(17득점), 표승주(16득점), 김수지(13득점) 등 주전들이 맹활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데시벨
2관	올빼미
3관	동감, 아마겟돈 타임
4관	데시벨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6관	올빼미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자백
7관	씨네커플 올빼미, 동감
8관	씨네커플 올빼미, 데시벨, 스트레인지 월드, 극장판 장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인학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

즐거움  
**문화산책**